

일본에서의 교환 유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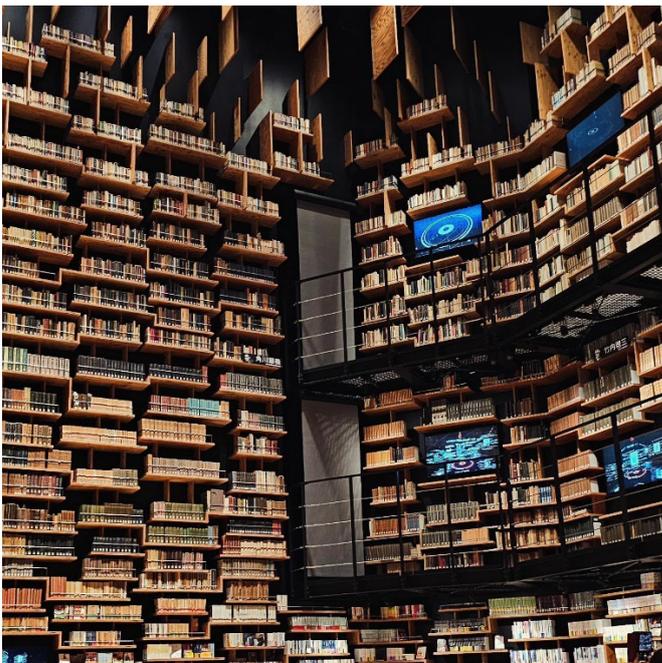
계명대학교

안예현

k2490043

일본에서 반 년간 유학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외에서 6 개월을 지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,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유학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

먼저,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 와서 모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고, 다양한 국적의 학생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유학의 목표였던 '자기 자신의 시야를 넓힌다'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. 대학 생활 중 가장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으로 교환학생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,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 오기 전에 다른 일본 대학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, 모교에서 일본어 스터디, 연극부 등 학과 행사를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공부하여 쌓은 일본어 실력을 교환 유학에서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



모든 수업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지만,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수업은 '일본 사정 연습 2B'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이 수업은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먼저 유학하신 분들의 작문을 보고 교환 유학을 할 학교를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으로 정하게 된 계기가 된

수업이기도 합니다. 유학의 장점으로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는 많지만, 다른 나라의 초등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는 적기 때문에 이 수업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. 서로의 나라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.



도쿄에서 유학을 하면서 여행도 다니며 일본의 문화를 많이 체험하였습니다. 도쿄 도내의 지역들은 물론, 도쿄 근교 지역인 가마쿠라, 사이타마현, 요코하마를 여행하였습니다. 여행으로 오면 잘 가지 않는 박물관도 많이 다녀보고,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쌓기도 하였습니다.

대학 생활의 마지막 학기를 일본에서 교환 유학으로 마무리한 것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. 한국에서는 외출할 때도 가족끼리 나가는 일이 많고, 친구들과 노는 일은 많지만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노는 일이 잘 없어 혼자서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, 일본에서 지내면서 이것저것 혼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경험도 많았고,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

마지막으로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서 잘 적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국제과 분들과 오토와칸 관리실 분들, 하기와라 선생님과 사쿠라이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매달 보고서를 읽어 주시고 답글을 달아 주신 이지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.